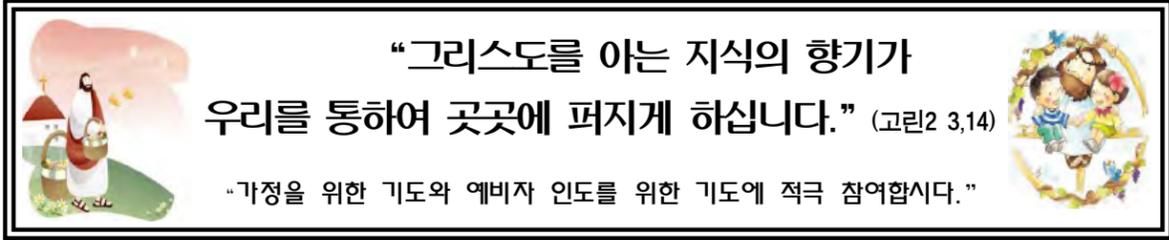


공동체 소식



8월 기도지향

- **문석찬(요셉), 백문주(엘리사벳)** 문호진(안토니오), 문예나(요안나) 가정
- **마이클 모랜, 이영민(엘리사벳)** 대니엘 모랜, 브라이언 모랜 가정

오늘은 "연중 제18주일" 입니다.

오늘 복음은 삶의 방향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에만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이 결국 썩어 없어지고 말 허망한 것에 대한 추구로 끝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적극적인 초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 자신이 "생명, 생명의 빛, 생명의 빵" 이십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 그분과 연결되고,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 생명은 먼 훗날,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연중 제19주일" 이면서 "성모승천 대축일" 입니다.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광복절이면서, 주님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께서 하늘나라로 불림을 받아 오르신 것을 기념하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날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시고, 하느님 나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느님 나라로 가야 합니다. 성모님의 사랑과 도움을 청하면서 미사를 봉헌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날을 기념하고 함께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미사 후에는 영세자들을 위한 축하파티와 간단한 점심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정 공청회" 있습니다.

오늘 중심미사 후 공동체 재정 관련 공청회를 가집니다. 본당신부님 이동관련 내용과 여러 안건에 대해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합니다.

세례성사 안내.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가족이 탄생합니다. 성인 3명이 세례성사를 받게 됩니다. 교우님들께서는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날 예비교우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례식 : 8월 12일(주일) 중심미사 때

새 영세자들을 위한 9일기도모임

새롭게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날 영세자들을 위한 9일기도가 지난 8월 3일(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새로운 가족을 맞아들일 준비와 함께 새영세자들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

예비신자들을 위한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교회에 입문을 원하시는 분이나, 기초교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우님들께서는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리일시 : 매 주일 아침 10시
- 교리장소 : 성당지하

거룩한 독서모임

매주 화요일 미사(저녁 8시)후 성당에서 거룩한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합니다.
- 화요일 : 저녁 8시 30분부터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31	210	160, 504	6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이번주일	차호섭(요 셉)	안광민(야 고 버)
	차서은(세라피나)	안광희(크 리 스)
다음주일	홍순익(마르티노)	문석찬(요 셉)
	김준영(요 셉)	문호진(안토니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이번주일	박혜정(가타리나)	문석찬(요 셉)
	김명은(안 젤 라)	백문주(엘리사벳)
다음주일	최은미(아 네 스)	안동현(프란치스코)
	박혜정(가타리나)	지은경(리 브 가)

애찬 봉사자

이번주일	한춘희 라파엘라, 김경희 스킨라스티카, 이영민 엘리사벳
다음주일	손정화 이사벨, 윤유나 클라라, 유미영 마리안나

헌금 봉사자

이번주일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다음주일	신혜경(마 리 아)	박희영(가타리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 <7월 29일>
- 미사참례 : 83명
- 주일헌금 : \$282
- 교 무 금 : \$620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박진성** 프란치스코
C: 913.484.3555
saecula1026@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8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는 데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이십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생명이신 주님을 모실 것을 다짐하며 정성을 다하여 미사를 봉헌합시다.

성화해설

명례
마산교구,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소재.

마산교구의 영적 고향이며 신앙의 원천인 명례는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밀양과 김해를 잇는 나무가 있던 곳이다. 명례는 병인박해 때 순교한 하느님의 종 신석복 마르코가 출생한 곳이자 오래된 교우촌으로 1897년 영남 지방의 네 번째 본당이자 마산교구의 첫 번째 본당이 설립된 곳이다. 또한 김대건, 최양업 신부에 이어 세 번째 망인사제인 강성삼 신부가 초대주임으로 사목하다 돌아가신 곳으로 2011년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주호식 파트리치오 신부 | 서울대학교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탈출 16,2-4.12-15 <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 주리라. >



주 님 께 서 하 늘 의 빵 을 그 들 에 게 주 시 니 라

- 이미 우리 들어서 아는 일들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러 하노라. 주님의 영광을 그분의 능하심을 전하러 하노라. ◎
- 그래도 그분께서는 위에서 구름을 호령하여 하늘의 문들을 여시니라. 그들이 먹을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고 하늘의 빵을 그들에게 주시니라. ◎
- 강한 자의 빵으로 인간을 먹이시고 배부르도록 음식을 내리시니라.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당신 성지로 오르손이 얻으신 그 산으로 이끄시니라. ◎

제 2 독서 : 에페 4,17.20-24 <여러분은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합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 음 : 요한 6,24-35 <나에게 오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의 이삭

“하느님은 3등입니다.”



어떤 성당에서 예비자 교리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잘 나오던 분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 왜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한번은 성당에 가려다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 나오지 못했고, 다 나은 뒤 다시 교리에 나오려고 운전을 하다 성당 앞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당에 나가면 축복 받고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좋지 않은 일만 생기니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분을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우리조차도 현실적인 복에만 온통 집착하고 있는데 예비신자야 오죽하겠는가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씩씩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기적의 참된 의미, 다시 말해서 기적 이면에 있는 하느님과 영원한 생명보다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더 원했던 모양입니다. 배불리 먹여주신 것에만 현혹되어 또다시 빵을 찾아 예수님을 따라온 것을 보면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먼 미래보다는 지금 눈앞에서 보여지는 은총을 더 바라고 살아갑니다. 비록 그것이 인지상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에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만이라도 영원한 것에 대한 안목과 희망을 키워 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본당 웹사이트에 실은 “하느님은 3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통해 나의 모습이, 그리고 교우님들이 어떠한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그 내용을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 3등은 하느님 만나는 일.
-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느님을 만나줍니다.
- 하느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느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 번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 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느님을 부릅니다. 하느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느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지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 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도 하느님은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느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느님을 일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느님을 일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1등이신 하느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나에게 하느님께서 몇 등입니까? 생명이 빵으로 오시는 주님, 당신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당신을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분을 나도 첫째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 박진성 프란치스코 신부 | 캔사스 한인 성당 주임

함께 나누어요

가난한 바보

박성철 시인의 ‘행복 비타민’ 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고 설령 놀림거리가 된다 해도 나는 바보가 부럽습니다. 남들이 즐기고 떠나간 자리를 청소하며 흐뭇해하는 바보. 친구가 버스표를 잃어버렸을 때, 내 마지막 남은 버스표 한 장을 기꺼이 내어 줄 수 있는 바보. 푸른 하늘이 오염되어 제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슬퍼하는 바보. 남의 슬픔이 마치 제 슬픔인 양 눈물 흘리는 바보.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볼 때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죄 인양 미안해하는 바보....”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데는 아주 영리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절정에 올라와 있으면서 아래를 내려다 볼 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바보스런 바보들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마지막 버스표를 남에게 쥐어주는 바보. 남이 어지러운 것도 혼자 지우며 웃는 바보. 다른 사람의 불행이 자기 것인 양 걱정하는 바보. 이런 위대한 바보들을 성당에 많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바보는 가난하지만 하느님께 마음을 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가난한 바보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교부들의 신앙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교부

기원전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을 따서 아프리카 나일강 하구와 지중해 연안이 만나는 곳에 세운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제국의 두 번째 큰 도시로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경제와 상업의 요충지였고, 백만의 인구를 헤아리던 도시였다. 이 도시는 고대의 아테네에 이어 그리스 지성계 전체의 가장 활발한 중심지요 모든 종교와 철학이 서로 만나는 길목이기도 하였다.

이곳에는 일찍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였고, 유대인 공동체는 상당한 특권과 행정적 자율권을 누리고 있었다. 그곳의 유대교 랍비들은 회람 문명 세계와 더 잘 접촉하기 위해서 히브리말로 된 구약성경을 회람어(그리스 말)로 번역하였다. 전승에 따르면 이 랍비들의 수가 일흔 명이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완성된 이 번역을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른다. 바오로 사도가 읽었던 성경이 바로 이 번역본인데, 대략 기원전 250년에서 150년 사이에 완성된 것이다.

알렉산드리아에는 필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박식한 유대인이 있었다.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그는 성경에 대한 우의적 주해들을 저술하였는데, 주로 창세기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로써 성경과 그리스 철학이 서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토양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마르코 사도는 이곳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교회를 세웠다(에우세비우스, 교회사 2,16).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2세기 후반, 판테누스가 처음으로 예비자들을 가르치는 교리학교를 세운 후부터인데, 그가 바로 클레멘스의 스승이었다. 150년경 그리스 아테네의 이교도 가정에서 태어난 클레멘스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 그는 진리를 찾아 얻으려고 시칠리아와 시리아, 팔레스티나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마침내 그는 18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판테누스를 만나 참된 진리인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판테누스의 제자로서 학생으로 지내다가 나중에 사제품을 받은 뒤에는 보조자로 돕다가 그 후에는 그 교리학교의 교장으로 활약하였다.

훌륭한 스승 판테누스에 대하여 클레멘스는 다음과 같은 증언을 남겼다. “판테누스는 사도들의 정원에서 주옥 같은 글만 가려 모아서 듣는 이들의 마음안에 순수한 지혜가 꽃피게 해 주었다”(양탄자 1,11,1). 스승의 의 뒤를 이어 이 학교의 책임자가 된 클레멘스는 그 지방의 지성인들을 받아들여 고전 문화와 복음을 조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클레멘스의 유명한 제자들은 오리게네스와 팔레스티나의 카이사리아의 주교인 알렉산더이다.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생겨나서 성경을 은유적 방법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은유적 성경 해석 방법이란 성경의 문자적 의미에 국한하지 않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 신비적 의미를 밝혀내는 주해 방법을 말한다.